

# 사絲적 인상

-작가 노트-

## 실, 종이, 하찮은 사물들

나는 주로 실과 종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이 재료들 중에서도 내가 주로 선호하는 종류는 봉제실 이나 일상의 두루마리 휴지, 식당용 냅킨, 포장용 습자지 등의 소위 '미술 재료'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하찮은 것들이다. 내가 이런 재료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물들이 갖는 특유의 가벼움 때문이다. 이것들은 확실한 존재감을 갖는 사물들에 대해 부수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주목 받지 못하는 숨겨진 사물들이다. 닦고, 보호하고, 이내 버려지는, 마치, '사라져가고 있는 중간형태'의 사물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 물건들의 수수하고 가벼운 존재론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 현재진행형 작업과 공간적 드로잉

가볍고 하찮은 사물들을 대단한 '오브제'로 드라마틱하게 재 탄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나는 그것들이 가진 일상성과 현재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에게 실은 '시간'과 그 '연속성'을 상상하게 한다. 이는 작업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간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내 작업의 개념적인 중심이 되는 작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매일매일의 반복적 노동을 요구하는 '진행형 작업' 이다. 예컨대 두루마리 휴지 위에 텍스트를 타이핑하는 것, 실로 끊임없는 리본을 짜 나가는 것 등 이다. 이는 완성이라는 목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재 진행', '중간 상태로서의 증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 미시적이고 가벼운 진행상태가 '나' 라는 존재가 묶여있는 '시간'에 관한 나의 '인상'이다. 그러나, 가는 실이 삼차원의 조형물이 되어 공간을 아우르면서 그 반복행위와 연속성은 육중한 시간의 무게를 갖는다. 내가 줄곧 관심을 갖는 것은 공간의 특유한 가벼움과 시간의 육중한 무게가 등가로 공존하는 시공(時空)의 이미지이다. 바스려질 듯이 가벼운데 반복이 만들어낸 결들의 무게에 압도되는.

## 반복, 차이, 리듬, 결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현대성을 응축시킨 동시대의 명백한 금언이 되었다. 나 역시 반복적인 노동을 통한 현재 진행형의 작업 속에서 '차이'의 의미와 특유의 위트를 발견한다. 그것은 뜨개질 코의 왕복운동을 따라 들쭉날쭉 만들어지는 구멍들이고, 견고하게 짜여진 '구조'로부터 불현듯 다른 차원을 감지하는 환기(喚起)의 작용을 한다. 이 얼기설기한 틈 들은 노동의 무게가 담긴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인 동시에 그 무게가 만들어낸 '균열'이다. 롤랑바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은밀하게 벌어진 틈 이며, 나에게겐 '푼크툼 (punctum)'의 세계이다.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결들이 없다면 시간을 쫓는(사는) 행위는 지루하고 지겹기 짝이 없을 것이며 그 시간의 건축물인 공간은 무미건조하고 답답한 감옥이 될 것이다.